

출판인들, 새 천년 맞을 마음 다져

제20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제주도서 2박3일간



지난 6월 17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출판 경영자 세미나'에는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참석, 만찬을 베풀어 출판인을 격려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지난달 17~19일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제20회 출판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할 출판인의 자세와 출판경영자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였다.

김규 교수(서강대,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는 <새 천년과 출판>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출판의 역사와 인류문화의 변천과정을 두루 점검하며 21세기를 맞아 변화될 출판의 양상을 집중 조명했다. "인간은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지식의 노예가 됐으며, 앞으로 전개될 오십년은 과거 1백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종이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지만 "출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개방화된 세계를 맞이해 출판인은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출판인의 마음가짐이 국민 정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치개념을 부여할 수 있는 출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CYBER KOREA 21, 창조적 지식기

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 현대근 과장(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총괄과)은 "세계는 지금 산업 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의 대두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법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출판인 또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 첫날 저녁 만찬에 문화관광부 박지원 장관이 참석해 "앞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지식이며, 이는 민족·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지식문화를 창출하는 출판인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식산업의 근간인 출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인터넷 서점과 전자출판 육성 지원, 도서정가제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매달 '대통령이 읽는 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혀 150여 출판인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오완진 기자

일러스트 작가 전시 사이트 개설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국내 최대의 포트폴리오 전시 사이트 넷폴리오(www.nf.co.kr, 대표 신수현)가 개

장했다.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및 신진 작가의 대표작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넷폴리오는 현재 작가 약 1백명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작품의 분야, 주제, 스타일, 재료별 검색이 가능하며, 작가의 연락처도 얻을 수 있다. 일러스트를 필요로 하는 출판사는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575-7886)

"읽으면 행복합니다" 거리 캠페인

문화관광부와 금강기획은 지난달 22~23일 명동 입구, 종로3가 등 서울시내 25개 지역에서 <전국민 책읽기운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에는 박지원 장관과 김순규 차관, '출협' 나춘호 회장, '서련' 이창연 회장, 연예인 최불암씨 등 220여명이 참여해 각종 홍보물을 배포했고, 재야 정치인 백기완, 작가 이순원씨 등은 즉석에서 사인회를 가졌다.



지난 6월 22일, 23일 서울시내 25개 지역에서 <전국민 책읽기운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은 종로 37에서 가진 저자 즉석 사인회(위)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관계인사와 연예인들.

'99 한국출판연감 발행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지난해 출판동향과 각종 통계를 종합 수록한 <99 한국출판연감>을 출간했다. 제1권 <자료편>과 제2권 <목록편>의 두권으로 발간된 연감에 따르면 98년은 IMF 체재로 인해 출판·잡지·서점·도서관·인쇄 등 각 업계별 사상 최대의 시련을 겪은 한해였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해 연초부터 송인서림·보문당·고려북스·한솔 등 도매상의 잇따른 부도와 1000여 출판사의 사실상 출판중단과 휴업상태, 1000여 서점의 폐점 등 엄청난 시련이 계속됐고, 이는 500억원의 정부지원금 긴급 지원으로 이어졌다.

최악의 불황에도 98년에 총 2만 8838종, 1억 5751만364부(만화 제외)를 발행했으며, 이는 발행종수 10% 증가에 발행부수 10.3% 감소를 나타내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전자출판물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전년도에는 총 215종을 발행, 97년도에 비해 급감했다.

그런가 하면 출판광고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25.5% 감소한 2387억 2069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신문 1057억원, TV 319억원, 라디오 127억원, 잡지 24억원의 순으로 지출됐으며 분야별로는 학습지, 그 가운데 재능교육·공문교육연구원·교원·금성출판·대교의 순으로 광고비를 많이 지출했다. 단행본 분야에선 해냄·정보문화



사·들녘·신원문화사·민음사 순.

이밖에 정기간행물 역시 700종 가까이 줄어들었고, 인쇄업계에서는 몰량감소와 자금난으로 법인업체 500개사 개인업체 2000여사가 부도를 내는 인쇄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겪었다. IMF의 회오리바람은 서점에 가장 크게 몰아닥쳤다. 전년에 비해 273개 서점이 폐업해 우리나라 서점수는 10년전(4880개)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준다. 경남지역이 232개사가 감소해 서점숫자가 가장 많이 줄었으며 경기·전북·부산 지역순으로 폐업이 심했다. 서점 한달간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0%가량 줄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할인판매가 가속화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각종 출판현황과 개정된 각종 법규, 추천도서목록, 저작권 국제조약 체결 현황, 한국문학 번역작품집 해외출판 현황 등과 업계 명부도 수록했다. 2권에는 98년 발간된 총 도서목록을 분야별 가나다순으로 찾아볼 수 있다. 75,000원 (753-5653)

'서울편집인클럽' 영월 동강서 수련회

서울편집인클럽(회장 안희근, 씨앗을뿌리는사람 편집장)은 7월 3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 영월 동강 일원에서 <99편집인수련회>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한국출판학회 김기태 사무국장이 <저작권 문제/단행본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이 <마케팅 전략/유통실태와 마케팅 방안>을 발표했고, 효형출판사 송영만 대표, 재미미주 이호백 대표, 생각의나무 박광성 대표가 각각 출판사의 노후를 공개했다. 둘째날은 동강 일원을 트래킹하며 우호를 다졌다. ❖